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역동경제 평창

2017년 5월 2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 21.(일)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5. 21.(일)	담당부서	다자통상협력과
담당과장	서가람 과장(044-203-5640)	담 당 자	김태희 서기관(044-203-5641) 구교영 사무관(044-203-5645)

아태 지역 통상장관들,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성장 모색

- 제23차 베트남 하노이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주형환)는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'17. 5. 20.(토)~21.(일)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**제2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통상장관회의**에 참석했다.

○ 회의에는 베트남 쩐 뚜언 아잉(Tran Tuan Anh) 산업무역부 장관,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(Robert Lighthizer Lighthizer) 무역대표부(USTR) 대표, 중국 중산(Zhong Shan) 상무부장 , 일본 세코 히로시게(世耕弘成) 경산성 대신 등 21개 아태 역내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**아태지역 경제통합, 중소기업 혁신, 다자무역체제 지지 방안** 등을 논의했다.

□ **제23차 회의**에서는 의장국 베트남의 주도 하에 **"새로운 역동성 창조,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"**를 주제로 ①**역내 경제통합 심화,** ②**디지털시대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,** ③**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성장 촉진,** ④**2020년 이후 새로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비전** 등 중점 의제별로 역내국간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
○ **(역내 경제통합)** 참석자들은 **아태 지역의 지속적 성장**을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, 국제 공급망의 원활화, 비관세장벽 해소 등 **역내 국간 무역·투자를 증진**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한편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**중소기업이 무역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**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.

○ **(중소기업 혁신)** 참석자들은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태 역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**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정책 환경 구축**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, 디지털화가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응해 **인적자원개발 등 관련 정책 개선**을 위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.

○ **(지속가능·혁신적·포용적 성장)**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어줌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 일자리를 축소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**경제와 사회 전반에 파괴적 영향**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, 경제·산업, 금융, 사회 등 분야에서 **아태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**을 구체화하기로 했다.

○ **(새로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비전)** 참석자는 **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의 중장기 비전인 보고르목표***에 따라 역내 **무역·투자 자유화와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**하는 한편, '보고르 목표'가 종료하는 2020년 이후 **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공동으로 추구할 새로운 중장기 비전**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.

* 보고르목표(Bogor Goals) : 제2차 APEC 정상회의('94.11월, 인도네시아 보고르)에서 아태 지역의 무역·투자 자유화를 2020년까지 달성할 것을 합의

○ **(다자무역체제 지지)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** 통상장관들은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총장과 업무오찬을 하는 자리에서,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과 자유무역의 혜택을 인정하고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는 **다자통상체제를 지지하**면서, 제11차 세계무역기구(WTO) 통상장관회의(MC-11, '17.12월, 부에노스아이레스) 성과도출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.

□ 이 차관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**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**가 **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**을 심화할 것을 강조했다.

○ 이를 위해 **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**를 포괄하는 무역협정으로서 논의 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중간경로(pathway)로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**RCEP**) **등 역내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중단 없이 진전**시켜 나가는 한편, **디지털 무역 활성화,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**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.

○ 업무오찬에서는 "통상장관회의(MC-11)"가 국제무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, '통상장관회의(MC-11)' 성과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 것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차원의 기여를 촉구했다.

□ **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(Robert Lighthizer Lighthizer) 무역대표부(USTR) 대표**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를 반영해 무역 왜곡조치의 시정, 자국의 무역적자의 해소 등을 위해 자유(free)·공정(fair)·개방(open) 무역이 아태 지역에서 핵심 가치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다.

□ 회원국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별 핵심 제안사업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, 그 결과를 종합해 올해 **11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**이다.

□ 한편, 이 차관보는 **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** 계기 쩐 뚜언 아잉(Tran Tuan Ahn)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을 면담하면서, **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**를 비롯한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고, 한-베트남 양자간 경제협력을 증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.

○ 아베제도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'통상장관회의(MC-11)'의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히고,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· 유럽 정상 회의(ASEM)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구교영 사무관(☎ 044-203-564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